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

KCMS사업부원들과 '2010 Mission' 수행에 한참 몰입해 있던 지난 4월 초.

'영국 Lodge Cottrell Ltd.의 법인장(Managing Director)'이란 예상치 못했던 업무에 대한 제의를 받았을 때, CC20 Project를 통해 나를 정립해본 VB (Vision Board)와 PDP(Personal Development Plan)속의 한 모습을, "준비되지 않은 자는 결코 다가온 기회조차 잡을 수 없다"는 말을 상기하고, 이 새로운 도전(挑戰)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4월 19일 인사발령 후 Visa 접수까지 무려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간 동고동락했던 많은 동료 및 선후배들로부터 주옥(珠玉)같은 조언(助言)과 격려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음이 또 다른 행운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전의 초기 추진력이 되어 주었음을 이 지면을 빌어 가슴 깊이 감사 드립니다.

7월 13일, 마침내 도착한 Birmingham.

영국에 대한 저의 막연했던 기존 관념을 흔들어버린 현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감당할 겨를도 없이, 인수인계 · 업무 파악 · 현안 해결 등으로 동분서주하다 보니, 이제야 인사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LODGE COTTRELL LTD.

1886년 전기집진기(Electrostatic Precipitator)를 처음으로 개발한 Oliver Lodge경이 1913년 Lodge Fume Deposit Co., Ltd.를 창립한 이래 오늘날까지, 100여년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그 유산(Heritage)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

Lodge Cottrell / Sturtevant Eng. / WC Holmes라는 3개사를 모태로, 수차에 걸친 인수합병이라는 험난한 격랑 속에서도 초지일관 대기환경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분투하고 있는 외로운 승부사.

그 어떤 수많은 수식어로도 형언하기에 부족한 Lodge Cottrell Ltd.

5월 4일 취임사에서 전 직원들에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CHANGE, CHALLENGE, INNOVATION! Sometimes Slowly, Something Rapidly!!"

노후된 조직의 경직성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우(杞憂)같은 우려를 핑계로, 현실의 긴박함을 직시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은 여태껏 최선을 다해 Lodge Cottrell을 지켜온 선배동료들에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행동입니다.

급속하게 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 모든 기업이 격렬한 나름의 생존전략을 수립하고, 전 직원이 하나되어 Mission수행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생존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변화를 주저하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한다면 결코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적합한 생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핵심 역량을 재고(再考)하고 그 속에서 숨은 자산(Hidden Asset)을 재정의할 것이며, 이를 집중 활성화시켜 재도약을 도모하려 합니다.

알고 보면 누구나 숨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오래된 기업일수록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핵심 사업 이외의 일을 담당하던 알토란 같은 보조 조직이나 기술, 2) 고객 데이터 분석에서 나오는 고객 마음을 읽는 통찰력, 3) 저평가된 핵심역량을 찾아,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 합니다..

저는 요즘 LCL Manager들의 살아있는 열정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산개(散開)되어 있는 그들의 능력을 한 곳으로 규합하여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면, 예전 LCL의 영광의 순간을 한 걸음 빨리 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 임직원들과 약속했습니다.

회사 창립 100회가 되는 2013년까지 향후 3년 내, 우리 모두의 열정(PASSION)을 모아서, 우리가 세운 Mission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그간 모든 정열을 다 바친 임직원과 그 근간이 되어준 퇴역 직원까지 초청하여 기쁨을 함께 할 성대한 Party를 열 것이라고...

어쩌면, '갈매기의 꿈'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꿈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도전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고통 끝의 기쁨은 배가됩니다. 그 기쁨을 모두와 나누고자 합니다

내년(2011년) 2월에는 새 일터로 옮겨 갈 것이고, 새로이 마련할 향후 3개년 계획 달성을 위해 새 출발을 할 것입니다.

KC Cottrell, KCGH 관계사 전임직원의 많은 지원과 격려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Practice Best Practice(최고의 사례)를 힘찬 실행력과 결단력으로

Acceptance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Lodge Cottrell의 Mission이

Success 성공적으로 성취되는

Story 우리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Innovation 혁신의 소중함을 알고

Open-minded 모두를,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드리는

Negotiator 협상 Leader로 거듭나겠습니다



김성진 법인장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KC그린홀딩스] 홈페이지 OPEN!

지난 9월 KC그린홀딩스의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본 웹사이트를 통해 KC그린홀딩스의 사업내용과 20여 개의 KC네트워크사의 설명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향 후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KC뉴스레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각종 정보를 공지하겠습니다.

웹사이트 주소 : www.kcgreenholdings.com 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KC그린홀딩스 지원팀 김현주
(hyunjoo@kcgreenholdings.com)



홈페이지 메인화면

[KC그린홀딩스] KC 통합 채용 공고 서비스 OPEN

KC관계사 전체 채용 공고 게재 ..
온라인 사이트, 뉴스, 신문 등 채용 공고 완료

KC그린홀딩스에서 KC 국내 관계사의 채용 공고 통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KC그린홀딩스는 그 동안 관계사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 오던 채용 공고를 통합하여 각종 온라인 채용 사이트, KBS뉴스, 라디오, 신문, 대학 취업지원실 등으로 채용 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이번 채용 공고는 지난달 6일에서 12일까지 온라인 채용 사이트 「스카우트」와 「다음 커리어」의 메인 화면 등록을 시작으로 주요 대학 취업지원실과 「포커스」「매일경제」 등에 노출되었고, KBS2 방송 「희망릴레이 일자리 119」에 소개되었습니다.

통합 채용공고의 효과는 단순히 비용 절감 부분을 넘어서 KC의 다양한 사업 영역을 소개하고 구직자들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쪽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KC그린홀딩스는 매 분기마다 관계사의 채용 동향을 파악하여 통합 채용 공고 서비스를 연간 4회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채용에서는 약 700여 명의 지원자가 지원하여 각 부분별 서류 전형을 끝내고 오는 7일부터 1차 면접이 진행됩니다.

KC그린홀딩스 지원팀 배수정 soojeong@kcgreenholdings.com



▶ 9월 10일 KBS2 TV 「희망 릴레이 일자리 119」 금요일 오전 11:20 방송에서 KC 관계사 채용이 소개 되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KC코트렐 북경사무소] 구매본부 설립

2010년 9월1일부터 북경사무소에 **KC코트렐(북경)구매중심 (KC Cottrell(Beijing) Purchasing Center)**이 새롭게 설립되었습니다.

본 부서에서는 제작품을 제외한 중국 관련 제품의 수출/수입 업무를 할 것이며 향후KC코트렐의 구매 업무가 신속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작품은 이전과 같이 KC Cottrell China에서 처리합니다.

KC코트렐(북경)구매중심의 인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Yu Zhou ping -- Chief Purchasing Officer

박승원

Zhao Guo rui

허영길

앞으로 많은 분들의 업무요청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KC코트렐 북경사무소 허영길(younjgil@kc-cottrell.com)



왼쪽부터 허영길, Yu Zhou Ping, 박승원법인장, Zhao Guo rui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등향
- 경제 등향
- 기획특집

[NOL-TEC Systems] KC그린홀딩스 및 KC네트워크사 방문

지난 9월 27일~10월 2일, NOL-TEC Sytems의 CEO Mr Wayne Johnson, President Mr. Vernon Hudalla, Mechanical Engineering Manager Mr. Roger Schmitz가 KC그린홀딩스 및 KC네트워크사 일부를 방문하였습니다.

NT 임원 3인은 당진/보령 회처리 설비 시스템, KC환경서비스 소각로 및 촉매 재생설비, POSCO광양 1~5소결 설비 및 포항공장, 하동CCS파일럿 플랜트, KCMS/NWL Pacific공장, 안성유리 등을 견학하며 6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 드리며, 다시 한번 KC가족이 되신 것에 대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KC그린홀딩스 지원팀 김현주(hyunjoo@kcgreenholdings.com)



한국방문 마지막 날 저녁식사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안성유리] 무재해 3배수(900일) 달성!!!

4배수 5배수 10배수를 향해 안전마인드의 달인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2006년에 이어 다시 한번...

모든 사업장이 재해가 없는 안전사업장이 되기를 소망하듯이 안성유리도 지난 2006년에 무재해 3배수를 달성하고 한동안 이어지지 못하다가 이번에 또다시 무재해 3배수 (900일, 2008.02.26~2010.08.13)를 달성하였습니다.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의식재고

무재해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 직원이 안전의식이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만 이루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유리회사라고 하면 재해의 위험이 항상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없이 생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안전관리자의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 그리고 전 직원의 안전의식 재고로 무재해 3배수를 성공적으로 달성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캠페인



안전체조



안전교육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산업재해 ...남겨진 이들의 아픔

재해로 인하여 함께 근무하던 동료의 회복을 못하고 평생 상처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회사 모두가 아픔과 피해를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는 의식을 확고 부동하게 가져야 두 번 다시 재해의 아픔을 겪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시작

2008년 초 용해로 보수공사를 시작으로 2010년 8월 여름까지 안전사고 없이 무재해 3배수를 달성한 것은 안성유리 가족 모두가 매월 실시하는 안전 캠페인에 동참하고, 안전교육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안전체조 실시와 안전구호를 다 함께 외침으로써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재해 없는 무재해 4배수,5배수,10배수를 향해 항진을 계속 할 것입니다. 안성유리는 무재해 3배수 달성을 축하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10월 1일, 5일, 12일 총 3차례에 걸쳐 바베큐 파티를 계획하고 있으며, 10월 1일 1차 바베큐 파티를 가졌습니다.



무재해 3배수 달성 기념 바베큐 파티

앞으로 무재해 4배수(1200일) 달성일은 안성유리공업(주)의 창립기념일인 2011년 6월9일인데, 무재해 4배수를 달성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KC그린홀딩스 및 Network 회사 모든 직원들의 무재해를 기원 드리며, 2010년 남은 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이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클레스트라 하우스저만] 중국 타이창 신공장 준공

클레스트라 하우스저만 타이창 신공장(장쑤성 소재)이 2010년 9월 10일 이태영 회장님, 프랑스 클레스트라 하우스저만 Thierry RESIBOIS 회장님, 태창시 위원 외 시정부 관계자, 여러 축하객을 모시고 성황리에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5월 법인설립 허가를 취득하고, 지난6월 타이창시 환경 보전국으로부터 도장시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최종 승인을 득한 후 3개월여 만에 전 임직원의 노력으로 생산시설을 조기 준공 하였습니다. 타이창 신공장은 상해시와 인접한 장쑤성 타이창시 경제 개발구에 위치 하고 있고 타이창 항구가 인접해 있어 향후 수출입 무역에도 유리한 지형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이창 공장은 첨단화 된 환경 친화적인 분말코팅(분체도장)라인을 완비하고 연간 27,000m²의 철제 칸막이를 공급 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 하였으며 향후 점차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태영 회장님께서서는 준공식 치사를 통해 이제 타이창 공장 준공으로 중국 내수시장 개발을 위한 든든한 플랫폼이 마련되었고 당사가 한 단계 더 도약 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으며 타이창공장과 더불어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자는 축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타이창 공장 준공으로 당사는 중국 내수시장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 할 생산기반을 구축 함과 동시에 구미 공장과의 연계를 통해 아시아 시장에 보다 탄력적인 제품공급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클레스트라 하우스저만 전무이사 김 종 오(jo.kim@clestra.com)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 타이창 공장 전경, 준공식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GS건설 시멘트 기존 대비 80% 덜 드는 그린 콘크리트 개발



GS건설은 한라ENCON 유진기업 한국그레이트와 공동으로 시멘트를 덜 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그린 콘크리트'를 개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 5일 파주 LG디스플레이 클러스터P9 현장에 처음 적용된 그린 콘크리트는 기존 콘크리트와 달리 시멘트를 5분의 1만 사용함으로써 탄소 다이어트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그린 콘크리트는 시멘트 사용량을 줄이고 슬래그 등 다른 화학 물질을 첨가해 기존 콘크리트 대비 10% 이상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GS건설은 설명했다.

세계 온실가스의 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콘크리트의 주원료인 시멘트는 1t 생산에 약 0.9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영남 GS건설 기술연구소장 부사장은 "그린콘크리트를 서울 반포 자이 아파트(3410채)에 적용하면 약 10만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며 "이는 여의도 면적 17.4배에 산림을 조성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2010.10.06 이정선 기자

정유시설 이제 로봇이 진단

가스안전공, 로봇이용 첨단 진단장비 개발 완료

한국가스안전공사는 30일 로봇을 이용한 고온고압설비 진단장비 및 전산관리 시스템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로봇을 이용한 석유화학 및 정유시설의 고온·고압설비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사고예방 효과는 물론 석유화학 및 정유시설에 대한 진단시간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기업의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유, 석유화학시설의 고온·고압설비는 울산 40개사, 여수 43개사, 대산 14개사, 기타 지역 5개사 등 100여개사에 약 340여기의 설비가 있으며 주로 원유 및 납사를 분해하기 위한 개질로/가열로로 고온·고압으로 운전하고 있는 중요 핵심설비다.

현재 이들 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인은 대부분 가동정지 기간에 실시하는데 내부검사를 위한 별도의 비계 설치 및 해체에 많은 시간과 비용 및 인력이 소요되고, 오염된 검사 환경(분진), 추락 위험, 밀폐, 공간협소 등 작업환경이 열악해 검사에 극심한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지난 3년간 지식경제부의 연구비용 지원을 받아 로봇을 이용한 자동검사장비 개발과 평가 및 측정데이터 전산관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 30일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한 것이다. 이번에 개발한 로봇이용 설비진단 장비는 원격에 의한 무인 자동검사가 가능해 검사시간, 비용의 획기적 절감이 가능해 졌다. 또 검사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분석 관리함으로써 고온·고압의 설비에 대한 갑작스런 파괴에 따른 사고예방과 부적절한 비용의 손실 및 인적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공사에서 개발한 로봇이용 진단장비 및 전산관리 시스템은 연구기간 중 현장 적용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GS칼텍스, LG화학과 고온고압설비인 개질로/가열로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협약을 체결, 시범진단 및 관리 전산프로그램 설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활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사에서는 이번에 개발한 로봇이용 진단기술 및 전산관리시스템을 석유화학 및 정유 플랜트, 제철소등의 고온 설비(튜브, 배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10월 경에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설비관리 국제세미나에 참석, 해외에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정훈 기자 2010년 09월 30일 (목)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고도화 설비에 화학공장까지...정유업계는 생존 경쟁 中

GS 2조6000억원·현대 2조1000억원 투자, 고도화 시설 증설 고도화 처리 비율 1위 에스오일, 1조4000억 들여 석유화학 공장 준공

국내 정유사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고도화 설비'에 주력하고 있다. 고도화 설비는 품질이 낮은 벵커C유 등 중질유에 수소나 촉매제를 첨가·분해해 휘발유나 나프타 등 고부가가치 경질유를 얻어내는 시설이다. 이를 통해 찌꺼기(슬러지) 기름에서 최고급 휘발유를 얻어낼 수 있다. 7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등은 고도화 처리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섰다.

정유사들이 고도화 설비에 주목하는 이유는 원유의 고도화 처리 비율이 높아지면 원유 1리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경질유의 양도 함께 증가해 매출 확대는 물론 수익성 개선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전남 여수에 석유 정제 공장을 준공한 GS칼텍스는 빠르면 이달 중 3차 고도화 설비 상업 가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도화 설비에만 2조6000억원을 투자한 GS칼텍스는 벵커C유 보다 가격이 저렴한 초중질유를 개선하는 최첨단 설비 시스템을 선택했다. 이 시설이 가동되면 고도화 처리비율이 현재 20.7%에서 28.7%로 늘어나면서 큰 폭의 수익성 개선도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3차 고도화 설비를 통해 생산되는 물량은 전체 수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오일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고도화 처리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고도화 처리비율 25.5%로 1위이지만 추가로 1조4000억원을 투입, 벤젠이나 톨루엔 등 BTX 제품의 생산량을 2배 이상 확장하는 온산 공장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을 새 주인으로 맞은 현대오일뱅크는 2조 1000억 원을 투자한 충남 대산 고도화 설비를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설비 가동 이후 고도화 처리비율이 30.8%로 늘어나기 때문에 업계 판도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경질유와 초중질유의 가격차가 워낙 커 고도화 처리 비율이 전체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제는 정유업계가 원유 정제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나 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 창출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각각의 전략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0.10.07 정혜원 기자

[한-EU FTA효과]정유·석유화학 "시장 확대될 것"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한-EU FTA가 체결됨에 따라 정유·석유화학 분야의 유럽시장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유럽에 국내 기업들이 수출하는 석유제품의 관세는 항공유가 4.7%, 윤활기유가 3.7%다.

한-EU FTA 체결로 무관세가 적용되면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상태에서 국내 석유제품은 가격 경쟁력까지 더하게 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정유 부문은 네덜란드 등 유럽에 수출되는 시장이 5% 안팎으로 크지는 않지만, 관세가 철폐되면 시장이 차츰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제품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 석유화학 회사들은 합성수지 품목을 비롯한 각종 석유화학 제품을 현재 80%는 아시아 지역에, 5%는 유럽 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석유화학공업협회 관계자는 "한-EU FTA가 당장 큰 영향을 주기보단 차츰 시장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관세 철폐가 적용돼도 2~3년 정도는 마진 개선 정도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석유화학 업종 특성상 수요가 늘어도 공급량을 늘리는데 시간이 걸려 시장을 확대하는데 2~3년의 시간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2010.10.06 조윤미 기자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제철소식]

포스코플랜텍 해외 태양광발전소 건립 '시동' 태국 등

포스코플랜텍(사장 조창환)이 태양광발전 사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플랜텍은 9월 2일 태국의 타이솔라플랜트(Thai Solar Plant),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기업인 에버테크노와 함께 3자 간 사업협약(MOA)을 체결하고 태국 중부지역 일대에 들어설 28.95MW급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태국 정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해 태양광발전소 유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태국의 태양광발전 시장은 국내보다 사업성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포스코플랜텍은 이번 사업 협약으로 총 사업비가 1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발전소의 설계·기자재조달·시공(EPC)을 일괄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기반으로 태국 등 동서남아 지역 사업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협약은 올해 초 포스코플랜텍이 에버테크노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을 체결하고, 해외 태양광발전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뤄낸 성과로 향후 지속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린에너지사업실 김연채 실장은 "태국의 태양광발전 설비 시장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 업체가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다. 우리 회사가 이번 기술협약을 통해 태양광설비 수주에 성공하면 태국에 진출한 국내 태양광발전소 기업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게 된다"고 말했다.

포스코플랜텍은 2006년 전라남도 무안에 1MW급 태양광발전설비를 공급한 이래 총용량 20MW 상당의 17개 태양광발전소 건설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8월 초에는 이탈리아 남부 일대에 5.5MW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린에너지 사업 분야 글로벌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쏜 바 있다. (9/16, 제836호)



▶ 조창환 포스코플랜텍 사장과 완랍 영통 타이솔라플랜트 사장(왼쪽부터)이 MOA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생 리포트] KC코트렐 / 대기환경설비 공급사

포스코가 인정한 기업'... 해외수주 거둔-포스코 신문



▶ 대표이사 이태영 사장

"몇 해 전 GE(General Electric Company)에 타르 집진기를 수출했을 때입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이니만큼 수주 과정이 몹시 까다로웠죠. 조그만 나라의 중소기업이 갖춰야 할 기술력을 쉽사리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포스코의 우수 설비공급사에 여러 차례 선정됐고, 2006년에는 최우수 설비공급사로 뽑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GE 측 반응이 확 달라지더군요. 부랴부랴 한국에서 관련 서류를 공수해 그쪽으로 넘겼고, 결국엔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포스코가 인정한 기업’이라는 공신력이 외국 업체와의 협상·수주 과정에서 도움이 된 것은 비단 GE와 관련된 건만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설립과 성장, 현황을 설명하던 이태영 KC코트렐 대표 이사야의 얼굴에 환하고 밝은 미소가 그려졌다. 세계적 기업과의 거래를 성사시켰던 순간이 다시 한 번 떠올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기환경 설비 분야 전문업체인 KC코트렐의 시작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립자인 이달우 전 대표는 국내에 발전소가 생기기 시작할 무렵 현장 소장 등을 맡았던 기술자 출신. 외국에서 들여온 발전설비 중에서 전기집진기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환경보호’라는 단어가 생소하던 시대. 그는 남들보다 한발 먼저 ‘산업 발전이 가속될 미래엔 환경문제가 함께 대두될 것이고, 오염을 방지하는 설비의 필요성은 점점 커져갈 것’이란 결론을 도출해냈다. 생산현장의 분진과 아황산가스 등 유해물질을 처리하는 일을 본업으로 하는 KC코트렐은 그런 배경에서 탄생했다. 한국에 환경청이 생기기도 전이었다.

설립 후 37년이라는 시간 동안 KC코트렐의 규모는 초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4명이던 종업원은 230여 명(해외법인 제외)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매출(국내법인) 1500억 원을 올린 탄탄한 중소기업이 된 것이다. 올해의 매출액 목표는 2500억 원.

KC코트렐의 성장 역사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990년대 초반 대만에 진출해 일본·미국·유럽의 기업과 경쟁해 대만전력공사와 계약한 것을 필두로 현재까지 그 나라에서만 환경설비 1억 달러어치를 수주했다. 첫 번째 성장의 단추는 해외 진출로 채운 것이다. 또 다른 기회는 1996년에 왔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에 걸쳐 공론화되던 그때 정부는 분진만이 아니라 아황산가스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다.

KC코트렐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황산가스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설비 제작에 착수했다. 이어진 1000억 원대의 당진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수주.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는 집진에 머물러 있던 사업영역을 탈황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두 번째 단추가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 광양제철소 배가스청정설비

소결공정 EP집진기 WBWF 품목 선정 포스코 기술개발 지원등 상생협력 결실

마지막 세 번째 단추는 포스코와 함께 채웠다. 2005년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1~4 소결공장의 유해가스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환경설비를 KC코트렐과 함께 제작했다. 그 규모가 18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공사. 이전까지 오스트리아나 일본의 회사가 해오던 일을 KC코트렐의 능력을 믿고 맡긴 것이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란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사업은 ‘배가스 청정설비 국산화’라는 결실을 맺었고, 두 회사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로 특허까지 얻었다.



▶ 포항제철소 2열연RM전기집진기

이렇게 맺어진 포스코와 KC코트렐의 인연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엔 KC코트렐의 소결공정 EP집진기가 포스코의 WBWF(World Best World First) 품목에 선정됐고,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관련 설비가 상용화되면 포스코는 향후 3년 이상 그 제품을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는 것이 중소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다”라고 말하는 이태영 대표가 이 프로젝트에 높은 관심과 정열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

그는 포스코의 기술개발 지원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현실적인 상생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성장일로를 걷는 듯해 보이지만 KC코트렐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왜 없었겠는가. 외환위기 직후를 떠올리는 이 대표의 표정은 비장했다. 수주 물량이 뚝 끊긴 공장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매년 5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다. 그때 임직원이 깨달은 진리가 있었으니 그건 ‘잘될 때 위기를 준비해야 한다’였다.

2001년 추진된 KC코트렐의 ‘3개년 계획’은 그런 배경에서 탄생했다. 오늘의 KC코트렐은 바로 이런 역경극복 과정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배워 설비를 만들던 시기를 지나 국산화에 성공하고, 이제는 우리 기술로 만든 설비를 해외로 수출하는 발전을 이뤄냈다. 우리가 잘해낼 수 있는 전문 분야이니 환경 플랜트 기업 중 세계 1위가 되겠다는 게 헛된 꿈만은 아닐 것이다.”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는 학자풍의 이 대표가 차근차근 들려주는 이야기엔 진정성이 실려 있었다.

‘취재와 인터뷰를 마치고 KC코트렐 본사가 위치한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홍익대 방향으로 잠깐 산책을 했다. 지루하던 여름이 가려는지 꽤 높아진 하늘. 문득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KC코트렐 사람들과 함께 푸른 가을 하늘 아래를 걷고 싶어졌다.

홍성식 <프리랜서 작가> (포스코뉴스 9/30 제 837호)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원자재 시장

[열연] 열연 유통價, 호가 따로 실거래가 따로
 - 적자 줄이기 위한 가격 인상 필요성 공감..호가 잇달아 올려
 - 수요 부진으로 가격 인상 소절음

열연SSC들이 잇달아 가격을 호가를 인상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SSC들은 톤당 88만원, 수입산은 톤당 80만원을 넘겨 호가가 나오고 있다. 손실 줄이겠다는 SSC들의 가격 정책이 호가에 묻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수요 부진에 짓눌린 유통업체들은 호가 인상이 호가 인상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시장 수요가 저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어 SSC들이 가격인상에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인상이 버거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유통업계는 그나마 있는 고정거래선을 경쟁사에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중압감이 호가와 실거래가격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스틸데일리 10-04 기사요약)

[냉연] 냉연업계, 포스코 동결에 대한 반응은?
 -가격동결 긍정적..가격인하 압박에서 자유, 4분기 수요가들 구매증대 기대

냉연업계는 포스코의 4분기 가격동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포스코의 동결결정으로 가격인하 압박에서 자유롭게 됐으며, 4분기 수요가들의 구매증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냉연도금시장에서 막대한 점유를 차지하는 포스코가 가격을 인하할 경우 냉연사들 역시 따라 내릴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포스코의 동결로 인해 냉연사들 역시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4분기 포스코가 냉연 도금재 가격을 인하하고, 냉연사들 역시 제품가격을 인하했을 경우 냉연사들의 실적은 크게 악화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냉연사들은 현재 3분기 톤당 5만 5,000원의 가격인상분을 아직도 반영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요가들에게 시황할인까지 적용하고 있다.

냉연사들은 포스코의 4분기 가격이 결정되면서 수요가들의 구매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8~9월 냉연도금시장 수요가 바닥으로 보인 가장 큰 이유는 4분기 가격 인하설이 시중에 떠돌면서 수요가들이 구매를 뒤로 미뤘왔기 때문이다.

냉연업계 관계자는 "판매부진 이유가 몇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격 인하설에 따른 판매부진이 가장 컸다"며 "시중 재고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4분기에 갑자기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디펜스적인 마인드가 사라지면서 점진적으로 구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냉연사들은 향후 시장상황을 보면서 현재 적용 중인 시황할인을 제거하고, 3분기 가격인상분도 조금씩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스틸데일리 09-27기사요약)

[형강] 현대제철, 봉형강價 인상 단행 "철근 81만1천원"
 - 기준가격 1만원 인상..시황할인 3~4만원 폐지
 -원가 상승 고려..수익 악화 "가격 인상으로 돌파"

현대제철이 10월부터 철근, 형강 등의 제품 가격을 인상하였다. 회사측에 따르면 국내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을 개선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봉형강류에 대한 시황할인을 폐지하는 한편 기준 가격을 5,000원~1만원 인상하기로 한 것.

현대제철 측은 "생산 효율 개선 및 원가 절감을 통해 코스트 상승분 자체 흡수에 주력하고 있으나 수익의 지속악화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가격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10월부터 봉형강류에 대해 유지되던 3~4만원 수준의 시황할인이 폐지되는 한편, 철근과 H형강 가격은 기준단가를 종전 대비 각각 1만원, 5,000원 인상된다. 이번 조정으로 각 제품의 기준가격은 철근이 톤당 81만 1,000원(고장력 10mm 기준, 기준가격 1만원 인상)으로, H형강은 92만5,000원(소형기준, 기준가격 5천원 인상), Γ형강과 ㄷ형 (스틸데일리 2010-09-27 기사요약)



[STS] 니켈價 상승, STS 유통시장 같이 갈까?

10월 LME 니켈가격이 톤당 2만 4천달러대를 넘어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해외 가격은 물론국내 유통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니켈가격이 2만 4천 달러대를 넘어설 경우 그동안 구매를 자제해왔던 수요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

10월로 들어서면서 수입업체들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코일센터들이 일제히 유통가격 단가 인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니켈가격이 최근 흐름을 유지한다면 지난 9월에 비해 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10월 시장 수요의 뒷받침이 중요하겠지만, 일부 업체들의 저가 혹은 할인 판매가 시중에서 지속될 경우 다시금 10월 가격 대란이 나타나 시장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각에서는 지적했다. (스틸데일리 10-05기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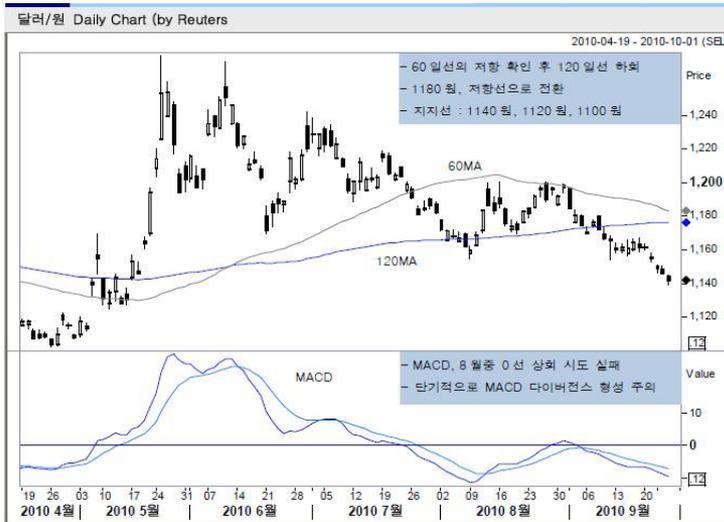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환율시장

10월 원달러 환율 1,110~1,160원 전망

10월 환율은 미국 양적완화 기대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와 아시아통화에 대한 절상압력이 지속되면서 하락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위안화 절상 압력 및 당국의 개입 약화 가능성을 등에 업고 외국인인 원화매수에 자신감을 회복해 1120, 1100 원 등 주요 지지선 하향돌파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재개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지난해 3월 미국의 국채매입 프로그램 발표 이후의 달러 약세와 금융시장 랠리 현상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양적 완화는 당분간 달러에 강한 하락 압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작년과 같은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달러화 레벨 자체가 당시보다 낮으며, 신용시장의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적고, 주요 선진국들의 동반 경기 부진이 달러의 일방적 약세를 이끌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선진국 경기 부진이 이머징 국가에 대한 메리트를 부각시키면서 미달러의 견실한 이머징 통화화에 대한 하락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력으로 시작된 환율전쟁은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유가 커 보이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거나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지난 6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위안화 절상의지를 내비쳤던 것처럼 적어도 11월 11,12일 서울 G20 정상회의 시까지 중국의 위안화 절상 허용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은 높다는 판단이다.

위안화 절상 압력은 위안화 대체투자통화 역할을 하는 원화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 역시 이머징마켓에 대한 비중확대 기조와 맞물려 그동안 원화 절상 배팅에 위축된 모습을 보였던 외국인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11월 중순까지의 주요 이벤트들은 한국 외환당국의 개입 스탠스를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원화 절상 시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수출모멘텀이 긍정적이고 원화의 상대적 저평가 인식에 따른 외국인의 한국자산에 대한 투자, 특히 채권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원화 절상 압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최근 위험자산 랠리에도 불구하고 소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과 엔화, 채권이 동반 강세를 나타내는 현상은 시장의 불안심리를 대변하고 있다. 또한 유로존 관련 신용위험이 여전히 잠복 중이며, 양적완화의 재개는 경기여건의 악화를 반영하며, 양적 완화의 효과에 대한 확인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작년과 같이 편하게 위험자산 랠리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양적 완화 재개 기대에 따른 유동성 장세를 즐기면서도 선진국의 경기 부진, 신용여건 악화 뉴스 등에 발빠르게 대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외국인의 원화절상에 대한 배팅 역시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0월 글로벌 외환시장은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정책적 이슈들이 주요 테마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민주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경기부양 의지는 달러 약세 및 이머징통화 절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 부양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 아일랜드 구제금융 문제, 각국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재정부문 우려 부각 가능성 등의 불안요인이 달러화 하락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달러는 달러약세를 등에 업고 상승 흐름이 유지되었으나 강한 유로가 유로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유로존 재정문제 부각 가능성으로 1.3750 달러에서 추가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엔은 달러 약세 속에 하락 압력이 예상되나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 및 일본당국의 지속적인 개입 의지로 80엔대 초중반의 좁은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여기서 잠깐☞

[9월 환율정보의 신뢰성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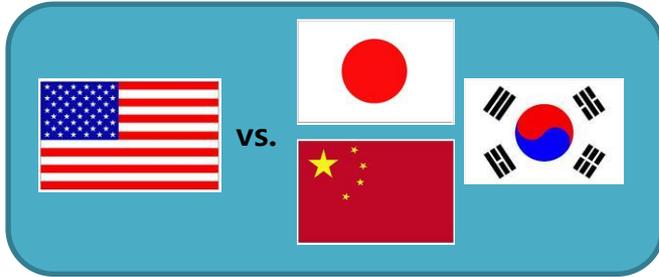
9월 원달러 환율은 약 1170~1220원을 예상하였는데, 상단은 비교적 신뢰성이 있었으나 하단선이 전망보다 많이 하락하였다. 9월 초 1200원 상향 시도가 무산된 후, 주요국의 지표 호조 속 위험자산 선호로 박스권 하단인 1170원을 하향 돌파하였고, 지속된 개입에도 불구하고 월 후반 미국의 양적완화 확대 기대 강화로 가팔라진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 외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1150원 하향 돌파하였다.

출처: 삼성선물 2010.09.30 10월전망
KC 그린홀딩스 유민정 (minjeong@kcgreenholdings.com)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통향
- 경제 통향
- 기획특집

위안화 절상과 슈퍼엔고의 비밀 -
<미·중 일의 환율전쟁>



미·중·일의 환율 전쟁은 이제 선전포고 단계를 넘었다. 언제 불을 뿜어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다. 세 나라의 생각은 똑같다. 자국 통화가치를 낮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자기 나라 수출 상품의 가격이 싸진다. 이렇게 되면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고용도 늘고, 경기도 좋아진다. 문제는 서로 자국 통화가치를 끌어내리겠다고 하니 충돌이 생기는 것이다.

미국 경기는 요즘 위태위태하다. 실업률이 급증하고, 주택 가격도 여전히 추락하면서 경기회복 속도가 확연히 둔화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려고 단기채권을 다량으로 매입하는 등 (양적 완화) 시중에 돈을 더 풀고 있다. 달러 약세 공세다.

이 때문에 중국·일본·한국의 통화가치는 폭은 다르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다. 9월 30일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날보다 2.0원 오른 1140.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절상률이 2.6%다. 이 기간 중 일본 엔화는 10.5%, 중국 위안화는 2.0% 절상됐다. 하지만 한·중·일의 대응방식은 다르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가 더 오르지 않게 사실상 묶어둔 채 버티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15일, 6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엔화 강세를 일시나마 돌려놓기도 했다.

미국이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첫째 이유는 자국의 경제상황이 달러 약세를 용인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2009년 이후 대규모 재정지출과 통화공급 정책이 미국 경제를 심각한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한 것은 사실이나, 기대했던 것만큼 회복 속도를 끌어올리지도 못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지출 계획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지출 정책을 반대하고 있어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다다음 FOMC 회의(11월)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는 등(골드만삭스) 벌써부터 연준의 추가 완화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재정지출 효과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가운데 중앙은행이 대규모 달러를 더 찍어내야 하고 그것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기는 어렵다.

미국이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둘째 이유는 그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주택, 고용, 소비 등 내수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수출 경기 회복을 통해 경기부양을 촉진하는 방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당국의 의지도 불구하고 지난 2분기 성장률을 떨어트렸던 가장 큰 요인이 수출 부진이었다. 여기에 달러마저 강세로 돌아서면 미국 경제는 그나마 남아있던 부양 수단을 잃게 된다. 엔화 약세 반전은 가까운 시일 내 실현되기 어렵다. 다만 당국의 개입으로 엔/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반등하거나 하락 속도가 늦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엔화의 방향이 바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다. 미국이 달러 약세를 원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달러 강세를 용인하게 된다면 그 때는 미국 주택시장이 완연하게 살아나거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등 미국경제가 금리 인상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는 때일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 국가의 단독 개입으로 글로벌 달러화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글로벌 달러화의 방향을 바꾸었던 1985년 플라자 합의나 1995년 역 플라자 합의는 미국-유럽-일본의 공조하에 가능했다. 글로벌 공조 없이 엔화가 강세 기조로 돌아서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통향
- 경제 통향
- 기획특집

엔/달러 변동성이 커질 경우의 시장 영향

엔/달러 반등은 한국 수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만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따라 엔/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변동성 큰 등락 흐름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내 업종 영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수출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엔화가 다시 약세로 전환한다면 한국 수출에는 불리하며, 특히 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 석유화학, 기계 등 산업이 수출경합도가 높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삼성경제연구소)

그러나 SK증권 애널리스트들의 견해는 다르다. 종목별로 본다면 엔화 약세가 우려 만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엔/달러 또는 원/엔 환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받는 기업 수는 일부이거나 영향을 받더라도 업황 펀더멘털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는 아니다.

즉, 산업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수출 구조가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주력 품목이 달라 경합도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이나 일본 제조업의 현지 진출 확대와 수입결제 통화의 다변화로 예전만큼 환율 민감도가 크지 않다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삼성경제연구소)

출처: SK증권 2010.09.16 Market Comment by 최성락
 중앙일보 경제뉴스분석 2010.10.01 김종윤·권혁주 기자

KC 그린홀딩스 유민정 (minjeong@kcgreenholdings.com)

